

보도시점 2026. 6. 25.(목) 15:00 배포 2026. 6. 25.(목) 09:00
 6. 26.(금) 조간

농식품부, 정부 비축 국산 콩 공급을 통해 식품기업 원료 수급 안정 추진

- 16개 식품기업 대상 정부 공급 국산 콩 부정유통 방지 강화 서약 및 애로사항 등 청취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6월 25일 서울 aT센터에서 정부 공급 국산 콩을 사용하는 주요 두부·두유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국산 콩 사용 확대를 위한 제조업체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식품업계의 국산 콩 사용 확대를 지원하고 정부 비축 국산 콩의 안정적인 공급과 유통관리를 위해 마련되었다.

농식품부는 올해 정부 비축 국산 콩을 활용하여 두부·두유 등을 제조하는 식품기업에 국산 콩 공급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식품기업의 원료 수급 안정을 지원하고 국산 콩 소비 기반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는 수입 콩과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원재료용 국산 콩 2만 1천톤을 배정받은 16개 업체가 참석하여 국산 콩 공급 현황을 공유하고, 사용 과정에서의 애로사항과 제도개선 건의 사항 등을 논의하였다.

아울러, 참석업체들은 정부가 공급하는 국산 콩이 지정된 용도의 목적으로 사용되거나,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부정유통 방지 서약에 참여하고, 자율적인 관리 강화에 협력하기로 하였다.

농식품부는 식품업계의 국산 콩 사용 확대를 통해 국산 콩 소비 기반을 넓히고, 정부 비축물량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안정적인 수급 관리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업계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국산 콩 공급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제도개선도 함께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올해 정부의 비축 국산 콩 공급 목표는 총 6만 5천톤으로 이번 원재료용 공급(2만 1천톤)에 이어 6월말부터 국산 콩 제품 할인 판매 업체 등을 대상으로 물가안정용·신수요 창출용 물량 4만 4천톤도 순차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공급이 식품기업의 원료 확보를 지원하는 한편, 국산 콩 소비 확대와 정부 비축 재고 부담 완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농식품부 정혜련 식량정책관은 “국산 콩 소비 기반 확대는 생산자와 식품업계가 함께 상생할 수 있는 중요한 과제”라며 “앞으로도 식품기업의 국산 콩 활용을 적극 지원하여 안정적인 수급 관리와 국산 콩 소비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담당 부서	농림축산식품부 전략작물육성팀	책임자	과장	김민호	(044-201-2911)
		담당자	사무관	김태영	(044-201-2917)